

Care Friends

당뇨병학연구재단
연차보고서 2024



(재)당뇨병학연구재단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목차

3 인사말

6 설원학술상

9 Young Investigator Award

12 연구비

1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22 6.5km 걷기 캠페인

26 꿈 장학금

29 함께한 변화

30 기부 현황

32 기부참여 방법

33 기부 약정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10대 이사장 차봉수입니다.

2006년 8월 설립한 본 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공익사업으로 당뇨병 관련 캠페인 및 당뇨병환자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6.5km 걷기 캠페인 등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국제학술대회 ICDM 2024에 당뇨병환자들을 초청하여 6.5km 걷기대회 및 공개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참여와 기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당뇨병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재단의 사회공헌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뇨병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예정입니다.

본 재단이 더욱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학제적 접근으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
차봉수

Care Friends

대한민국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인,
점점 사라져가는 내분비전문의료인,
당뇨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당한 당뇨인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내분비학 미래세대 양성을 도모하며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부금은 당뇨병학 발전 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를 위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초대회장 故김응진 교수가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 고취와 학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故김응진 교수의 아호에서 이름을 따와 1986년 “설원연구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설원학술상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14년부터 사업 주체를 학회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여 학술상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당뇨병학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 1인을 선정하여 매달과 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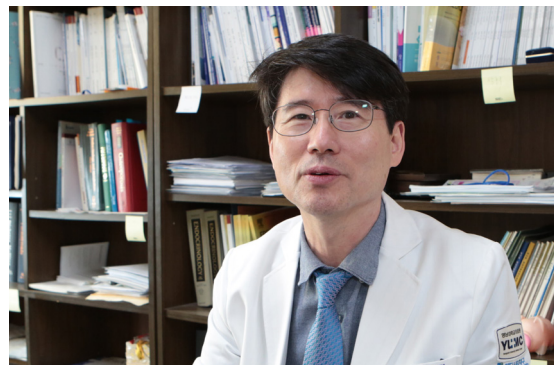
설원학술상 상금
1,500만원



설원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원규장(영남의대)

대표논문 Rac1-NADPH oxidase signaling promotes CD36 activation under glucotoxic conditions in pancreatic beta Cells (Redox Biology, 2017.4)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남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원규장입니다. 2016년부터 4년간 대한당뇨병학회 간행이사를 하면서 학회 공식 학술지 DMJ가 SCIE에 등재되었고, 다음 2년간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술이사를 하면서 국내최초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2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회 회원 분들의 지지로 대한당뇨병학회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이사를 맡아 역임하였습니다.

설원학술상을 수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설원 김응진 선생님의 제자 사랑과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원 학술상 수상이 말할 수 없이 기쁘며,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이사님들과 대한당뇨병학회 모든 회원님들 특별히 전, 현직 이사장님,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회 이사와 이사장으로 일할 때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족 같은 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대학과 학회와 연구에 함께해 준 문준성 교수와 힘든 연구에 늘 함께해 준 우다야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논문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2형당뇨병환자가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포도당 독성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한가지로는 제가 평생 연구하고 있는 산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즉, 고혈당이 췌도세포에서 산화스트레스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췌장의 췌도세포 특히, 베타세포를 파괴시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베타세포에 CD36이라는 지방 전달체가 존재합니다. 원래는 고지질(고지방) 환경에서 발현이 증가하여 세포 내로 지방 유입을 증가시켜 지질독성을 일으켜, 이 또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베타세포 기능부전을 일으킵니다. 제 초기 실험 연구에서는 고농도포도당에 짧은 시간에 노출된 베타세포에서 CD36이 발현됨으로 포도당 독성뿐만 아니라 지질 독성으로 베타세포 부전을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지질 농도에서 왜 CD36이 발현되느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지질 상태의 고혈당 초기에서 산화스트레스 지표인 Rac1 NOX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고 이 Rac1 NOX가

CD36을 발현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생체 연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D36 억제제가 당뇨병 초기 또는 당뇨병전단계에 투여된다면 베타 세포도 조기에 보호할 수 있고, 당뇨병 예방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당뇨병 연구를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소개해주세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공간은 물론 함께할 연구원도 없어서 무모하게 혼자 연구 방법 프로토콜만 보고 실험을 진행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면서 멘토이신 Paul R. Roberson 선생님을 만나 많이 배웠지만, 이후 귀국하여 진료와 학생 교육을 하면서 기초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끝없이 들어가는 연구비도 늘 문제였습니다. 처음 국가 연구비 수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연구재단 연구비로 연구하는 중에 혁신형의사과학자 사업단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멘토인 Susumu Seino 선생님과 공동 연구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별세한 것이 아직도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요즘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재)당뇨병학연구재단과의 인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과 이사장을 지난 4년동안 했으니까, 아직도 재단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동안, 6.5 Km 걷기 캠페인과 취약계층 당뇨병환자를 돕기 위한 앱 지원 사업 등이 생각납니다.

당뇨병 연구를 하는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구든, 임상이든 당뇨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권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비 수주를 위해서 일단 좋은 잡지에 연구가 실려야 하고, 그때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만 잘 견디면 그 이후 국가연구비에 도전하면 됩니다. 주위에 좋은 스승님과 제자들을 만나면 이 힘든 시기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한 주제만 집중해서 한 우물만 파는 평생 연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당뇨병 연구로 한국에서 노벨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ng Investigator
Award 상금
1,000만원



당뇨병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2005년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은 만 45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을 심사한 후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업적은 국제적 유명잡지에 책임저자로 발표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대한당뇨병학회 대표학술지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책임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20회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자 인터뷰 허지혜(한림의대)

대표논문 Remnant Cholesterol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Type 2 Diabet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Diabetes Care, 2023.2.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허지혜입니다.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제20회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먼저, 수상의 기회를 주신 대한당뇨병학회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상은 저에게 여섯 번의 도전과 실패 끝에 얻게 된 결과여서,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수상의 기회가 저에게는 더욱 뜻깊게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도 이 상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당뇨병 연구에 매진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대표논문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희 연구는 "잔여콜레스테롤"이라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콜레스테롤 유형이 당뇨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잔여콜레스테롤은 주로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혈액 속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만성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환자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 알려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보다 잔여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잔여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이 당뇨병 및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잔여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의학 분야 중 “당뇨병을 선택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혹은 이유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당뇨병 연구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한 계기는, 내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많은 당뇨병환자들이 단순한 혈당 조절의 문제를 넘어 심혈관질환, 신장 및 안과질환으로 고통받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당뇨병환자들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당뇨병을 늦게 진단받아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 것을 보며, 더 나은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자 또는 당뇨병전문의가 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저는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자이자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당뇨병의 복잡한 병리 기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와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문적 성과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당뇨병학 분야와 당뇨병환자 치료의 발전을 위해
매년 우수한 과제를 10편 내외로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1억 6,000만원



김경진

고려의대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연구비 20,000,000원

연구제목 골다공증 약제인 데노수맙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에서 골대사로 전향하여 아직도 배워야할 것이 많은 부족한 저에게 이 연구비의 의미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응원의 의미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속에 품었던 주제를 용기내어 계속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비 30,000,000원

연구제목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자동화된 환자별 혈당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전향적 유효성 평가 임상

대한당뇨병학회 추계연구비를 수혜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한 기회와 기쁜 마음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뜻깊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신제

한양의대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비 20,000,000원

연구제목 비만, 체형, 체구성이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 사망에 미치는 영향

이번 연구비 수혜를 통해 체형 및 체구성과 대사질환 간의 관계를 탐구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루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연구비 30,000,000원

연구제목 새로 진단된 2형 당뇨병 환자의 케톤체
생성능에 따른 지질프로파일에 대한 연구

2형당뇨병환자에서 케톤 생성능에 따른 지질프로파일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연구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미혜

순천향의대 순천향대구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비 10,000,000원
연구제목 한국인 청년(19-39세)에서
 2형당뇨병, 당뇨병전단계, 비만의 주요합병증
 발생에 있어 우울증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미치는 영향 연구

먼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청년 2형당뇨병, 당뇨병전단계, 비만 환자들의 마음건강과 많이 가공된 식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수명

고려의대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연구비 10,000,000원
연구제목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의 심장 및 신장 이점에서 케톤체의
 역할: Common Data Model 기반 다기관
 후향적 연구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의 심장 및 신장 이점에서 케톤체의 역할에 대해 Common Data Model 기반 다기관 후향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지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연구비 30,000,000원
연구제목 허벅지 저밀도 근육의 면적이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벅지에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포도당 소비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본 연구비를 통해 허벅지 근육의 질이 당뇨병 등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대사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
연구비 5,000,000원
연구제목 국내 종합병원 1형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 관리 지표 실태

“국내 종합병원 1형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 관리 지표” 연구를 통해 연속혈당측정 기반 당뇨병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뇨병 교육자 연구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비 5,000,000원
연구제목 저소득층의 당뇨병 자기관리와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취약 계층 당뇨병 연구의 기초를 쌓겠습니다.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은?

세계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1991년 제정하였으며, IDF는 매년 11월 14일 전세계의 당뇨병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당뇨병의 날에 맞추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범국가적으로 환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 등을 널리 홍보하고 계몽하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1992년부터 매년 11월 '세계당뇨병의 날'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당뇨병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06년 재단 설립과 함께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는 당뇨병학연구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았으며 건강강좌, 푸른빛 점등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범당뇨인상은?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오랜기간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발굴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당뇨병과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모범당뇨인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매년 주치의 추천을 받아 매년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승일 여의도성모병원

주치의 권혁상

1형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30년간 꾸준히 치료 및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당뇨병환자들에게 희망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훈 순천향대부천병원

우선 모범당뇨인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의 7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큰 영광입니다. 이 상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당뇨병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함께 나누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항상 환자의 내면을 귀기울여 주시고 개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십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늘 잘 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한 당뇨병에 관한 최신 정보를 통해 큰 도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를 의사 대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아껴주시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의 최덕현

군복무 중 1형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다회인슐린요법으로 7년째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요. 당화혈색소 6% 초반대로 잘 관리하며 본인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최홍주 대전을지대병원

2009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1형당뇨병 진단을 받아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기에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케토산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합병증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서 근력을 키우며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진학 후 환경 변화로 인해 다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혈당 센서와 모바일 기기의 도움으로 실시간 혈당 확인이 가능해졌고, 당화혈색소를 7% 내외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6% 수준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엔 비용이 부담스러웠으나 건강보험 지원 덕분에 새로운 기기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뇨인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과거 부모님과 친구들 덕에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에서 인슐린 투약 시 여러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에 실제 경험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뇨인의 삶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당뇨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 때마다 새로운 약재, 기기나 관련 정보를 잘 소개해주십니다. 덕분에 저도 새로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홍준화

열 세살, 1형당뇨병을 진단받고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싸워왔고, 또 앞으로 더욱 긴 시간동안 싸워야 할 숙제가 남아있지만, 지치지 않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최말랑 고신대복음병원

주치의 김부경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당뇨병을 진단받을 당시 당화혈색소가 11.1% 였으나, 이후 10년 동안 적극적인 관리로 당화혈색소 6%를 유지하는 모습에 추천하였습니다.

정철 아주대병원

모범당뇨인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더 신경써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항상 세심한 진료를 해주십니다.

주치의 한승진

2형당뇨병을 진단받고 B형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진료 중이나, 성실하게 외래 진료받으시고 생활습관 관리를 잘해서 현재까지 합병증 없이 당뇨병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경화도 잘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간경화 합병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혜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먼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신 대한당뇨병학회와 저희 주치의 교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발병하여 저에게 혈당 관리는 힘들기만한 어려운 과제같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임신하고 출산하며 열심히 혈당관리하고 노력한 제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얼떨떨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노력을 하게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셋째 임신 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험난한 길에 이런 엄청난 행운과 살아갈 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 1형 당뇨인도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다는 걸 알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병원 주치의 송선옥 선생님은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굉장한 아우라를 가지신 분이였습니다. 지나가시는 모습마저도 프로페셔널 하시고 진료상담을 해주실때도 굉장히 신경 많이써주시고 제가 놓치는 부분도 세심하게 조언해주시는 제 인생 주치의 선생님 이십니다. 아마 송선옥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ㅎㅎ 혈당관리는 해도해도 어려운것인데 항상 성심성의껏 조언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잘할수있게 도움을 주시는 송선옥 교수님 항상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주치의 송선옥

지난 17년 동안 1형당뇨병을 동반하며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진단시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윤성희 세브란스병원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일 뿐인데 상까지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셨기에 가장 나를 잘 아는 내가 날 위해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의 강은석

1992년 소아 당뇨병으로 당뇨병 첫 진단받고 32년이라는 긴 유병기간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한 관리로 특이 합병증 없이 건강한 당뇨병 환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형당뇨병 환자들, 소아 환우들 및 보호자분에게도 질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좋은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홍양진 제주대병원

저는 단지 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것 뿐인데 제게 이런 상까지 주시다니 무척 기쁩니다. '모범'이라는 수식어에 누가되지 않게 앞으로 더욱 혈당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때마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고관표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 목소리가 좋아 믿음이 갑니다. 진료 때마다 눈을 보며 말씀하시는 그 따스함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 친절함에 존경심을 담아봅니다.

주치의 고관표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로 소아마비라는 장애, 심한 동반질환,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생활과 철저한 혈당조절로 당뇨병환자들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생각하여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태선 삼성서울병원

수많은 당뇨인들이 있고, 모범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 뜻밖에 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에 조금 겸연쩍스럽고 부끄럽기까지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인자한 표정과 조금 당당한 말투로 진료 데이터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것이 저로 하여금 항상 반성도 하고 매번 좀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주치의 김재현

2006년 당뇨병 교육을 받은 이후 매일 20-30분씩 운동을 하고, 식사요법 시 싱겁게 먹기 위해 국물은 먹지 않고 있으며, 매끼 골고루, 알맞게 식사요법을 하고 처방 받은 약물도 잘 복용합니다. 병원에 진료받으러 올 때 마다 당뇨병교육실에 방문하여 검사결과를 받아가며, 상담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다른 당뇨병환자의 귀감이 되어 추천합니다.



이관모 청포도내과

주치의 김동우

매년 지역 보건소와 당뇨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당뇨병 관리 교육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뇨병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당뇨병을 처음으로 진단받은 이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광희 대전한국병원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한것 밖에 없는데 이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 조심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라서 당뇨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자상하시고, 주의해야할 핵심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족과 같이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치의 이상호

2형당뇨병 진단 직후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착용하고 당뇨병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재까지도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고 음식섭취, 운동, 생활습관개선, 주치의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 추천합니다.



윤순남 화순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고 인슐린 치료를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많이 좋아졌고 이후에 강호철 선생님을 추천받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진료 받으신지 오래되었어요. 집이 서울인데 소개로 내려갔고, 사경을 헤매다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강호철

원격전이를 동반한 매우 드문 뇌하수체암 환자이지만,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로 암, 그리고 당뇨병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범당뇨인상 수상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경 강릉아산병원

혈당 관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보다 더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선정되어서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당뇨병에 걸리면 임신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참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걱정과 달리 저는 건강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큰 아이가 벌써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저처럼 당뇨병 때문에 학업과 결혼, 임신과 출산, 직장생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고 약한 저도 발병한지 20년이 되었지만 합병증 없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직장생활도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며 저희 선생님께서 힘내라고 모범당뇨인으로 선정해주신것 같습니다. 평범한 저를 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관리를 하면 누구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게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명숙 선생님은 제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 발품팔아 알아낸 정보를 여쭙거나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받아들여주셔서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펌프도 권유해 주시고 새로운 인슐린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하며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면 잘 알려주셨습니다. 당뇨병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서 서류 준비를 할 때 저도, 병원도 잘 몰라 허덕이면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러갈 때 늘 마음이 가볍고 부담없이 선생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치의 심명숙

사실 평범하게 지내는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당뇨병환자입니다. 특히나 두 번의 출산을 겪으면서, 하루 3-4회의 인슐린 투여 및 혈당 측정을 하면서 혈당 조절을 항상 훌륭하게 해내는게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혈당 조절을 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과 아름다운 태도로 저에게 많은 감명을 주신 환자분입니다. 언젠가 이분을 모범당뇨인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닿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world diabetes day
14 November

6.5km 걷기 캠페인은?

대한당뇨병학회, 동아쏘시오그룹과 함께 2021년부터 매년 '6.5km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km 걷기 캠페인'은 당뇨병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꾸준한 걷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작하였으며, 당뇨병환자와 가족, 일반인 누구든지 걷기 어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6.5km 걷기캠페인

- **일정** 춘계: 5월 1일 ~ 6월 30일 /
추계: 9월 1일 ~ 10월 31일
- **참여자** 33,440명 (춘계: 11,743명 / 추계: 21,697명)
- **걸음수** 18,848,708,271걸음
(춘계: 6,290,494,909걸음 /
추계: 12,558,213,362걸음)
→ 연간 지구 약 315바퀴를 도는 걸음이 기부됨
- **참여이벤트** 걷기 인증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춘계 50명,
추계 100명에게 포카리스웨트 기프티콘 증정

지구 315 바퀴



1억 5천만원 기부



6.5km 걷기대회 및 공개강좌

대한당뇨병학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국제학술대회 ICDM 2024를 환자와 함께 걷는 6.5km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개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와 동반인, 당뇨병교육자가 함께한 의미 있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준비운동 후 가을날의 정취를 느끼며 걷기에 참여하였고, 저탄수화물 점심 식사 후 운동을 배웠습니다. 오후 공개강좌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전문가들이 경험을 나누고, 당뇨병의 특성에 맞춘 사회공헌활동과 적절하지 않은 섭식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처음 시도된 이번 행사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의 한마디

열심히 걷고 건강해지고 있어요^^

40대 아들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나가네요. 그동안은 **운동의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은 걷기도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들처럼 당뇨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염원하는 기분으로 걸었어요!!

좋은일에 기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참여했어요. 꾸준히 걸으니 습관이 되어 몸도 마음도 가볍네요. 조금이나마 당뇨병환자분들께 보탬이 되고자 인증하고 갑니다. 화이팅! 모두 건강합시다!!

평소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금주와 쉬는 날 숲길을 걸어보자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챌린지를 알게되었어요. **매일 1만보를 목표로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애썼어요. 작은 실천이 삶의 활력이 되는 것**에 매우 뿌듯합니다. 오늘도 빗속을 둘이서 걸어볼까나~^^

재수생 딸이 공부만 하는게 너무 안쓰러워 6.5km 캠페인 핑계로 매일 나가서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딸과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딸의 공부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덕분에 딸과 사이가 더욱 좋아진 것 같아 좋네요 ㅎㅎ

아침마다 아이 둘 학교 보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캠페인을 조금 늦게 알게 되어 아쉽지만 덕분에 제일 **싱그러운 계절을 온 몸으로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초록세상을 누리며 찰나의 행복도 맘껏 누렸지요. 건강해지기도 했지요!

장미꽃잎이 날리는 거리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날때까지 힘차게 걸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올해로 연세가 93세이신데 십수년째 당뇨약을 복용하시지만 늘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시답니다. **가족력이** 있는지라 식사에 신경쓰고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병전단계라네요. 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지금이라도 열심히 걸어서 회복해 볼까해요

너무 걷기 좋은 가을이 왔어요! 좋은 취지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라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네요~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캠페인!!** 응원합니다!!

걷기대회 및 공개강좌 소감

강의를 들으며 처음 아팠던 시절을 떠올리니 그때의 어려움이 새삼스레 느껴지며, 지금의 건강한 제 자신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강의로 동기와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엔 1형과 2형당뇨병환자를 나누어 각 병에 더 심도있고 필요한 내용을 강의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관리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라는 자신과 다짐을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참석한 자리였는데 많은 부분 준비하고 섬세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당뇨병환자의 고민과 힘듦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은?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만19~29세 젊은 당뇨병환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장학금 사업이 젊은 당뇨병환자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꿈 장학금
총 7,500만원



1인 150만원 × 50명

강성은

학생으로서 늘 빠듯했는데, 꿈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제가 꾸는 꿈을 조금 더 여유롭게 쫓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강준구

너무 힘들고 병원비가 직장 다니면서 치료받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아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권수경

너무 기뻐요!! 당뇨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꿈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 좋고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지민

꿈 장학금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건강 증진에 힘쓰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선빈

동생과 자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빛이 늘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당뇨병학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김성훈

저의 꿈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며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할 생각입니다

김유진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흔쾌히 시간을 들여 추천서를 써 주신 병원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많은 신청서 사이에서 저를 믿고 선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의 의의를 잊지 않고 처음 신청서를 쓸 때 그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율리

20대로서 학생과 진정한 사회인 사이 어딘가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20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또 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김은선

꿈 장학금을 받게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수많은 젊은 **당뇨인들을 대표해서 뽐냈다고 생각하며 정말 치료를 받는 것과 꿈,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우

다행히 여행계획이 있었는데 시기에 맞춰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 센서달고 관리 잘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겠습니다.

문지은

저는 신청지원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합병증 검사 할수 있고** 또한 남은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혁

사실 학교를 멀리하게 되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있는데, 약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기숙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식비와 생활비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 추천으로 꿈 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운이 좋게 선정되어 너무나 기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최대한 아끼며 지혜롭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기 버거우실 때에는 이러한 지원을 잘 찾아서 한번 지원해보세요. 뜻 밖의 행운이 찾아 올 수 있어요. 앞길에 빛을 비추어준 당뇨병학연구재단에 감사를 전합니다.

박은정

저는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다 비급여로 안과까지 다니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의료비가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 **한줄기
빛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박의진

정말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꼭 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원

2024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꿈 장학금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선정이 되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1형당뇨병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고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꿈 장학금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방연주

정말 꿈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배환승

감사합니다.

손성필

최근에 소득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재단의 꿈 장학금
선정에 감사합니다

손우정

임신과 출산으로 돈도 많이 쓰게되고 힘들었는데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어 가뭄에 단비같습니다. 장학금은 몸조리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에 쓸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살에 1형당뇨병이 발병하여 28살까지 25년동안 관리하느라
힘들었고, 함께한 병이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송혜정

꿈 장학금으로 부담이되던 진료비,약값 등에 사용하고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좋습니다

신현인

재단의 좋은 사업과 좋은 취지로 꿈 장학금을 받게되어 매우
기쁘지만, 아직 저희 또래에는 혈당을 관리할 줄 모르거나
관리가안되는 당뇨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 장학금이 좋은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혁

뵙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또 저희 가족을 위해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희

너무너무 기쁘고 소모품과 약값이 부담된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어서 기쁘고 좋습니다

양승엽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당뇨병 생활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선정되어서 제 꿈을 더욱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합니다.

오지민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있고 소모품비용도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채은

처음 지원해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좋게 봐주시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리

늦은나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학비가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기회
덕분에 도움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선우

기대하지도 않았던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장학금이
운동을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어서 당뇨병학연구재단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소희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병원에 외래갔다가 이런 좋은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꿈 장학금을 받게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꿈 장학금을 통해 **금전적인 걱정없이 치료받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제 꿈에 천천히 다가가볼 생각입니다.**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수혜자로 뵙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솔비

젊은 당뇨인으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
꿈 장학금이라는 좋은 사업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여
수혜자로 선정된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과정에서의
많은 도움과 장학금을 수혜받는 것 모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이 일상생활과 투병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수빈

이제 6년차가 되다보니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사회에 나가야 할 나이가 되니 **지병으로 인해 느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를 미워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더라구요.** 자취생 신분엔 의료비까지 부모님께 지는 신세도 너무 죄송했구요. 이번 장학금으로 취준 열심히 해서 **잘 이겨나가보겠습니다!** 앞으로도 1형당뇨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이은비

신청을 하고 까먹고 지내다가 문자가 와서 놀람반, 기쁨반이었습니다. 필요한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지원

지원자가 많은 것을 보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되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찬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아

매우 기쁩니다.

정윤지

당뇨인으로써 사회적 제약이 생각보다 많고, 힘들지만 이 장학금을 통해 **제 꿈을 펼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학금 이름이 꿈 장학금이라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많은 학생들도 느끼겠지만, 당뇨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게 이러한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태리

열심히 해서 낫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지

같은 당뇨인 지인이 이걸 권유해서 반신반의하며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었지만 인원이 한정되어있어서 나이가 어린 당뇨인들이 더 많이 선정이 될거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구직중이다보니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병원비가 부담이 되다보니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간절함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 마냥 기다리는거도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막상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아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하며 뭔가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해교

꿈 장학금 수혜자가 되어 매우 기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심적으로 곤란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호선

조금 더 자신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현

이렇게 좋은 장학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장학금 수혜자로서 모범을 보여 혈당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호

우선 꿈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어 너무나 영광이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당뇨병학연구재단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젊은 당뇨병환자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자기개발 및 생활개선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정훈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최주현

감사합니다!

최진서

당뇨병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진호

이번 사업으로 인해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영

꿈 장학금 기회 생겨서 좋았고 그 기회를 잡아 수혜자로 선정되는 행운과 행복이 다가와주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

한혜린

너무나 감사드리며, 의료비 및 **위축되어 있던 저의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속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한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바라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현희

감사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서브브랜드 공모전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9월 29일

공모자격 당뇨병환자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공모내용 당뇨병환자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서브 브랜드명 네이밍 공모

심사기준 대표성, 활용성, 심미성, 창의성, 완성도 등 종합

총 434건 응모

금상1명 푸른등불

은상2명 푸른동행 / 파란리본

동상3명 당당한동행 / 당찬나래 / Hope forward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으로 시상 진행

*대상은 선정작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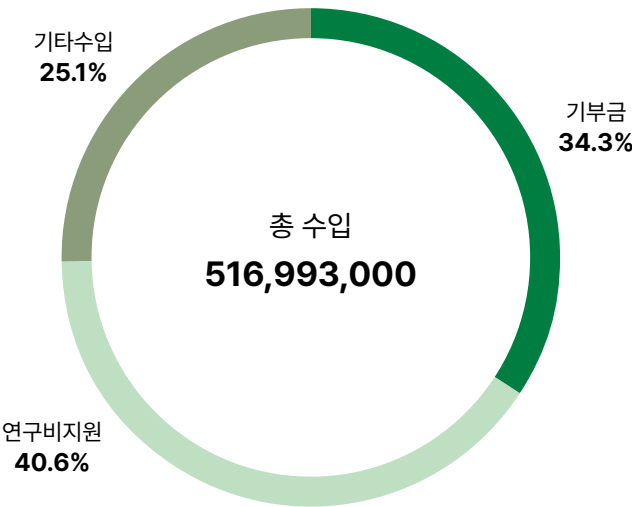
기부 현황

2024년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결산보고는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2월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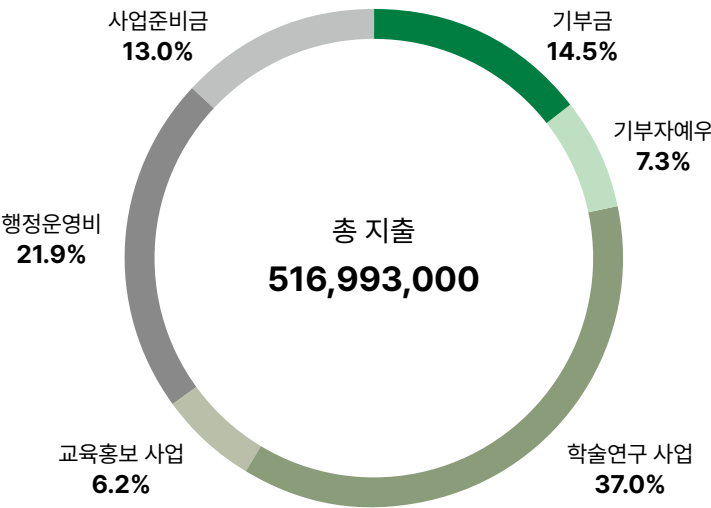
(단위, 원)

수입



기부금	177,087,000
연구비지원	210,000,000
기타수입	129,906,000
합계	516,993,000

지출



기부금	75,000,000
기부자예우	37,963,000
학술연구 사업	191,480,000
교육홍보 사업	32,088,000
행정운영비	113,203,000
사업준비금	67,259,000
합계	516,993,000

연도별 기부금

2022년	176,082,460
2023년	201,804,000
2024년	387,087,000

단체

1억원 이상

동아쏘시오그룹

1천만원이상

한국키스톤

심포지아조직위원회

㉔아이쿱

5백만원 이상

호프데이 티켓,
사일런스옥션기부금

1백만원 이상

(주)엘카라

대한당뇨병교육

간호사회

김형진내과의원

1십만원 이상

대구엔도내과

연세조흥근내과

1만원 이상

아플리에보네르

개인

1천만원이상

차봉수

박경수

박석오

김신곤

하승우

김상수

서교일

김민주

5백만원 이상

한경아

원규장

윤석기

1백만원 이상

윤건호

문준성

김재현

김영범

정춘희

권혁상

박희백

안규정

김미경

김대중

박태선

김정미

강봉용

최성희

김성래

정인경

진홍일

정희경

김동우

김해원

송복례

안유배

오춘식

윤태승

이경일

이원영

장학철

전석길

정윤석

홍성관

1십만원 이상

김하일

진홍용

이은정

김낙석

오승준

김광훈

김민선

김승만

신동우

심강희

이승환

조소미

조영민

최영주

최철수

한정훈

박향량

홍의실

최태훈

배기선

구보경

남수민

송인옥

전자영

전희숙

정찬희

박지영

서미혜

양여리

오윤주

김상용

김종화

배재현

서상환

임정현

장선호

조재형

채봉남

홍영선

홍은경

황은정

최경애

김남훈

이진우

김철희

박정환

양예슬

이해민

장은서

고선희

고승현

김난희

김동림

김동선

김보연

김소현

김수경

김일영

김지윤

김진화

김현성

김현진

김현창

김혜순

김희경

노정현

류동렬

류혜진

목지오

문민경

문성수

박근애

박형규

손현식

송선옥

안명숙

유성훈

이경애

이문규

이승은

이양선

이우제

이지선

이희우

임은하

정승민

조영연

진경식

최유미

추정은

하은영

황유철

1만원 이상

장길남

이지현

최지은

강병선

곽수현

권덕희

권슬기

기현균

김경진

김균후

김동영

김동희

김미월

김운정

김원준

김은경

김준영

김혜수

남궁준

남정옥

박유재

서은옥

염선영

유혜민

이난영

이은숙

이정림

이희정

전숙

전재한

정혜승

진상만

차선아

추연우

한나

한민지

김도한

허태경

구교영

권오빈

권준엽

권혜진

김규리

노연희

배성한

손예진

신미리

염선경

이효진

최덕현

허진홍

강석윤

강신애

강애리

고정은

고현정

곽성용

김경신

김기창

김미금

김민숙

김소연

김슬기

김양현

김영미

김영민

김원

김준기

김지수

김현애

김현자

김현희

김희영

노명진

노민영

박상익

박성현

박세희

박수현

박진웅

방하연

배미선

백영미

변홍주

석선희

석진아

성백민

성예림

손경선

송원준

신은총

신인규

안말정

안현지

염기섭

염제오

우창윤

원동욱

유민우

이슬이

이승연

이연희

이유진

이윤상

이인수

이인영

이재원

이정건

이정희

이종원

이창범

이초롱

이한상

이현주

장병용

장준영

정경미

정수진

정혜민

조영은

조윤영

조윤정

주상현

주혜경

최노아

최하나

한재우

한재훈

홍순근

황인권

Jayshri Jagtap

Marlisa N. Calma

Vikas K Umar

ADNI HAZUANIS

BINTI ADNAN

awanish Kumar

Upadhyay

Hidayah Awaludin

Ma. Marci C. Cruz

MOHAMAD AKMAL

BIN MOHD ROSLAN

NORAZLINA MD JAZLI

Norlaila Binti Abu

Samah

Piyooash Babele

Putra Rizki

기부참여 방법

우리의 마음이 모여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금부문 (택1)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내분비학 미래 세대 양성사업

당뇨병 연구, 예방 프로젝트 사업

당노인 지원, 대국민 공익사업

기부금 납입 (택1)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약정방법 (택1)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접수

기부약정서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접수

이메일 diabetes@kams.or.kr

팩스 02-714-9084

우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금 담당자

온라인 약정

재단홈페이지



기부하기 버튼 클릭(온라인 기부)



<https://diabetes.or.kr/foundation/>

세제혜택

개인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제공제율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법인 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세제공제율 손금산입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약정서

기부자 정보

이름 (단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여부	☐ 회원	☐ 비회원
추천인	기부금 영수증 신청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해당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름과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부 정보

모금부문	☐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 내분비학 미래 세대 양성사업	
	☐ 당뇨병 연구, 예방 프로젝트 사업	☐ 당뇨인 지원, 대국민 공익사업	
기부주기	☐ 월 정기기부 ☐ 일시기부	기부금액	원
기부동기 및 요청사항			

납부 방법

☐ 무통장입금	예금주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계좌번호 국민은행 055201-04-227107
☐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신용/ 체크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MM / YY	카드주명

* 카드결제 및 정기출금일은 매월 5일입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정해둔 실시간이체(CMS) 출금한도는 1일 1계좌당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 이상의 기부 참여는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및 예우품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약정인 _____ (인)



(재)당뇨병학연구재단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기부자 예우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기부 누적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백 만원 이상	5백 만원 이상	1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
감사장			●	●	●	●	●	●	●
학회행사 등록비 1년 무료				●	●	●	●	●	●
기부자 명패/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명패 전달식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춘계 이사급 예우							●	●	●
ICDM 이사급 예우								●	●
보도자료 배포									●

일반인

* 본인
** 본인+직계가족

기부 누적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백 만원 이상	5백 만원 이상	1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
감사장			●	●	●	●	●	●	●
연례 '오찬' 초청(1회)				●	●	●	●	●	●
기부자 명패/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명패 전달식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비학술행사 VIP초청/연례 '만찬' 초청							●	●	●
당뇨병/내분비진료 VIP관리								●*	●**
보도자료 배포									●

단체

*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 ICDM

기부 누적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감사장	●	●	●	●	●	●	●
연례 '오찬' 초청(1회)		●	●	●	●	●	●
기부자 명패/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명패 전달식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비학술행사 VIP초청/연례 '만찬' 초청					●	●	●
홍보부스 제공						●*	●**
보도자료 배포							●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발행인 차봉수

편집위원 박석오, 최경애, 박유정, 김정희

당뇨병학연구재단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E-mail diabetes@kams.or.kr Tel 02-714-9081 Fax 02-714-9084



(재)당뇨병학연구재단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tion